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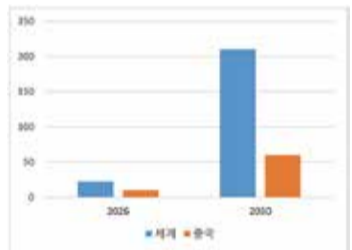
## 중국 로봇산업 어디까지?

현재 중국의 로봇 산업 시장 규모는 연속 13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중국은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 로봇 등 로봇 산업의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성장했다. 또한 이러한 로봇은 실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사진=바이두의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S의 모습 (출처: 바이두)]

현재 로봇 산업에서는 인간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결합이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AI 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956억 달러에서 2027년 1580억 달러, 2030년에는 18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림=세계 및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바이두는 지난 4월 유비테크(UBTECH)와 협력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Walker S)'를 공개했다. 이 로봇은 바이두의 대형언어모델(LLM) '어니 4.0'을 탑재해 사람처럼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다. 바이두 창업자인 빈 리 회장은 워커 S가 휴머노이드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첸진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 따르면, 중국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3년 751억 8000만 위안에서 2027년에는 1872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음식을 만드는 로봇 (출처: 바이두)]



[사진=음식을 서빙 중인 로봇 (출처: 바이두)]  
[사진=저장대학교 내 춤추는 로봇 (직접 촬영)]

한편, 2024년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인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각각 '옵티머스'와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AI와 로봇 공학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고급 동작 제어와 인간 유사 동작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도 정부 주도하에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협력하여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고성능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투자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집중적이다. 중국 정부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의 일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에만 로봇 산업에 약 100억 위안(약 14억 달러)을 투자했다. 또한,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업적 응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의료, 헬스, 교육 등 관련 분야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서비스 로봇의 스마트화 수준이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 응용 분야도 확장되고 있다. 박물관, 호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안내, 배달, 청소 등 기능을 가진 공공서비스 로봇이 보편화되고 있다. 2018년 말 항저우에서 개장한 무인호텔 페이주부커(菲住布渴)는 호텔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모든 과정을 AI 로봇이 담당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큰 관심을 받았다. 로봇이 투숙객을 맞이하고, 예약 정보를 확인하며, 룸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 호텔은 로봇 호텔의 대표적인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무인 배달 로봇은 주소만 입력하면 최대 100kg까지 짐을 싣고 목적지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 2 )

## 중국 MZ들 가난뱅이 메뉴 찾는다

중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총구이(窮鬼)메뉴'를 찾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총구이(窮鬼)'는 가난뱅이를 뜻하는 단어로, 가난뱅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음식을 일컫는다.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SNS에는 저렴한 식사 메뉴 조합인 '가난뱅이 패키지'나 브랜드별 할인 정보를 정리한 글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사진=중국 한식 전문 프랜차이즈 미촌(米村)이 새로 출시한 3위안짜리 메뉴 (출처: 샤오홍슈)]

13위안짜리 1+1 메뉴를 먹는 것이다. 월요일에는 맥도날드에 가서 치킨 맥너겟을 무료로 제공받고, 화요일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1+' 이벤트를 즐기고, 수요일에는 도미노 피자에서 30% 할인을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간다.

'총구이 메뉴' 소비 열풍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두로 시작했다. 밀크티 브랜드 헤이티는 평균 30위안(약 5,600원)이었던 밀크티 가격을 12.5위안(약 2,300원)으로 인하했고, 이케아 또한 금요일마다 일부 음식의 가격을 절반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글로벌 체인점들이 먼저 이러한 할인 제품을 제공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환호를 받자, 다른 현지 음식점들도 기존 메뉴의 가격을 낮추거나 저렴한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가격 경쟁에 참여했다.



[사진=샤오홍슈에서 공유되고 있는 총구이 추천 메뉴 (출처: 샤오홍슈)]

이 같은 현상은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렸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속에서 중국인들은 신중하게 외식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음식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 지표상 중국은 내수 회복세에 들어서긴 했지만, 사람들의 소비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특히 외식 부문이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지난해 문을 닫은 외식업체가 136만여 곳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치의 폐업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외식 업체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젊은이들의 총구이 메뉴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침은 3위안짜리 조식 뷔페를 이용하고 점심은 배달앱에서 10위안짜리 메뉴, 저녁은 맥도날드에서

( 3 )

# 상해사범대학교 2024년 모집요강

중국어 화·수·목  
대면반/온라인반

2024년 9월 10일  
~ 2025년 1월 9일

- 매주 12교시 화수목  
09:45 ~ 11:15  
13:00 ~ 14:30(복경시간)
- 학비 : 6000원(5인 이상 개강)
- 신청비 : 450원

중국어 8주  
온라인 저녁반

HSK 5급 / 6급반  
비즈니스중급 / 고급반

2024년 5월 4일 ~ 6월 29일  
2024년 9월 16일 ~ 11월 15일  
2024년 11월 18일 ~ 1월 9일

- 매주 월화목  
18:30 ~ 20:00(복경시간)
- 학비 : 3800원
- 접수비 : 450원

2024년 가을학기 어학연수  
(보통반, 비즈니스반, 강화반)

2024년 9월 9일 ~ 2025년 1월 10일

- 보통중국어반: 입문부터 고급까지 총 7개 레벨
- 비즈니스중국어반: 중급·고급반 월~금 20교시/주  
대면수업 9000원/학기
- 강화중국어반: 초급·중급·고급/월~금 30교시/주  
대면수업 17000원/학기
- 제출서류: 입학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  
접수비 450원/학기

유학생 본과

2024년 9월 입학  
8월 중순까지 신청마감

- 입학시험: 2024년 6월 15일 (토) 13:00
- 전공: 중국어, 중국어국제교육
- 세부전공: 비즈니스중국어, 중국어교육  
본과 1학년 1학기 ~  
본과 3학년 1학기 입학가능
- 접수비: 520원 학비: 19,800원/년

하계단기반

2024년 7월 8일 ~ 2024년 8월 2일  
2024년 8월 5일 ~ 2024년 8월 30일

- 수업내용: 초급반·중급반·고급반
- 학비: 대면수업: 3800원(4주)
- 접수비: 450원

※ 본 광고 제시 시 접수비 면제

021 6432 2824

상담문의

上海市桂林路100号上海师范大学5号楼对外汉语学院206室 (우편, 200234)  
찾아 오시는 길: 지하철12호선 桂林公园역, 732, 830,763, 909, 804 등 버스

E-mail: iccs@shnu.edu.cn (중국어/영어)  
yeewen@shnu.edu.cn (한국어)